

롯데제과 상품포장 현황

The Market a Prize package of LOTTE

이익재 / 롯데제과(주) 영업전략팀 차장

1. 식품 포장의 중요성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포장도 단순히 제품 보호만 충실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질적 차별화와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고, 기능, 편리, 재미 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충족될 때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식품에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되는데는 포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떠한 아이템보다 더욱 중요하다. 특히 세계화 추세에 따라 포장은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편리성, 간편성, 디자인의 중요성 또한 국제 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 롯데제과 포장운영 현황

롯데그룹은 포장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중앙연구소 산하 포장연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 관련 신소재 연구 및 신제품 진행시 안전성, 적합성 등을 전담하여 진행

함으로써 포장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1997년 kolas(한국시험 거사기관 인정 기구)로 지정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롯데제과 각 공장에서도 식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입고되는 포장재를 개발 초기 뿐만 아니라, 입고 LOT별로 수시 점검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1. 식품의 안전성

2-1-1. 포장재 잔류용제

롯데제과는 1996년 말부터 메스컴에서 크게 부각된 포장재의 잔류용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식품의 포장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포장재 잔류용제에 대한 기준을 한국식품공업협회 기준치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장재 잔류용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과 상호 점검 및 보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2. 합성수지제의 식품 안전성 시험

신제품에 대해서는(용기, 완구, 스틱, 포장재 등) 사전 적합성 여부 등을 당 포장연구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외부 인증기관(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등)을 통해 확인 후 도입

2-1-3. 환경폐기물

용기 및 노벨티 제품에 사용하는 수축필름은 소각시 다이옥신 검출이 될 수 있는 염화비닐수지(PVC)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폴리에스터(PET) 재질로 대체하고 생산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각 제품에 대해 검토단계부터 포장의 공간비율, 포장회차, 포장의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

2-2. 포장재 감량화

2-2-1. 공간비율

1992년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전 제품에 대해 공간비율을 점검하였고, 포장 공간비율은 20%이상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소비자 조사등을 통하여 최종제품에 대해 검증을 받고 생산에 연결한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원부자재 상승에 따라 과

대포장으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함으로써 소비자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예) 4000마가렛트 포장규격 축소 ('01.5월)
2000칸초 포장규격 축소(2001. 5월)

2-2-2. 포장 회차

종합선물 등을 제외한 일반 제품은 포장에 있어 2차 포장 이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포장(포장재 두께 Down, 용기중량 Down, 紙 Case, Box의 중량 Down)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크레임 발생 방지 및 간편한 포장을 통한 제품의 편리성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 Needs에 부합하고 있다.

단, 제품의 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제품보호위해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경우

1)판검 : 은지+내포지+Folflwrap

(제품 보호 목적)

2)엄마손파이 : 내포지+Tray+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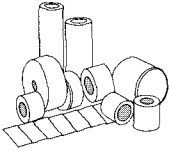
(제품 보호 및 자동생산)

3)3600원짜리 카스타드 : 내포지+Try+외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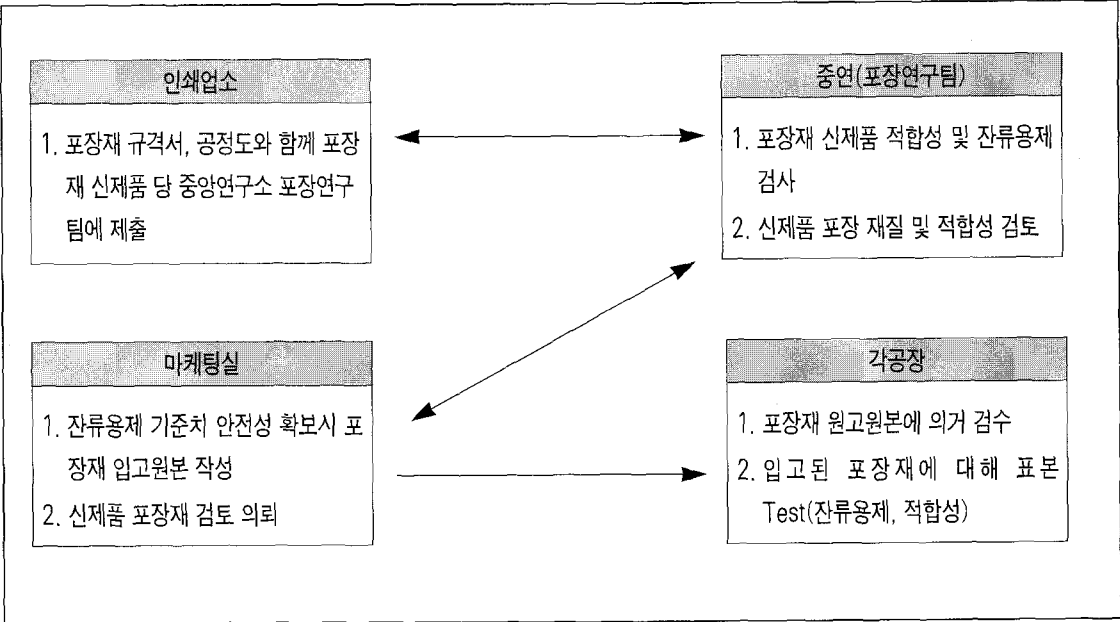
(제품보호)

[표 1] 한국식품공업협회와 롯데제과 포장재 잔류용제 관리 기준

한국식품공업협회	톨루엔(Toluene) : 2mg이하 //m ² , 잔류용제합계(Total) : 6mg이하/m ²
롯데제과(주)	톨루엔(Toluene) : 1mg이하 //m ² , 잔류용제합계(Total) : 3mg이하/m ²



[표 2] 롯데제과 포장재 관리 Flow



2-2-3. 포장재 재활용

제품 설계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포장재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라미네이팅 재질을 제품 도입단계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각종 용기류 사용시 각 용기별 재활용 마크를 표기함으로써 재활용 및 분리수거시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의 포장은 단순히 제품 보호만을 위주로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의식수준의 향상 및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포장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포장재 변화 추세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해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료의 연구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의 위생성과 안전성이 강조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포장의 감량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롯데제과는 각종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 Needs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최적의 제품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며 제품 설계 시점부터 과대 포장 지양 및 환경을 고려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